

‘정상’이라고 믿는 모든 것 뒤집어보기

Feb 09, 2024 | 김민 기자

Page 1 of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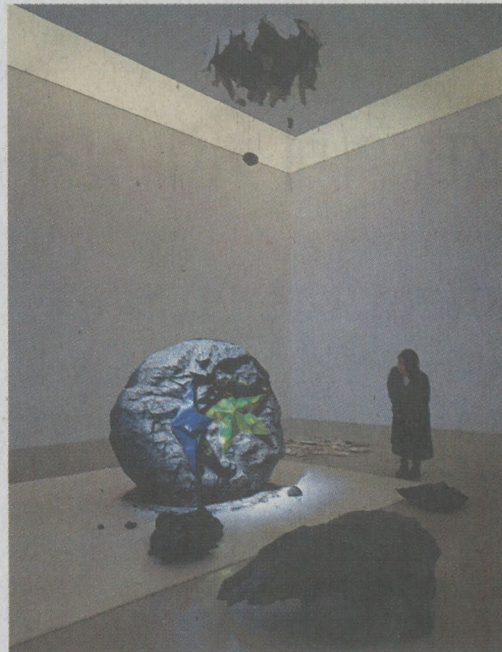
‘정상’이라고 믿는 모든 것 뒤집어보기

김홍석 작가 ‘실패를 목적으로...’展
‘슬리퍼 돌덩이’가 ‘하이힐 한 켤레’로

김홍석 작가의 개인전 ‘실패를 목적으로 한 정상적 질서’가 1일 국제갤러리 서울점 K2, K3관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뒤엎킴’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김 작가는 전시장에서 우리가 당연하고 정상적이라고 여겨 온 것들이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테면 슬리퍼에 돌덩이를 붙여 놓고 ‘하이힐 한 켤레’라고 제목을 붙이거나, 입구에 놓인 작품 ‘내 발밑의 무게’는 부드러워야 할 카펫을 금속(브론즈) 조각으로 만들었다. 또 조커의 얼굴에 고양이 몸을 한 조각은 조커가 고양이 털옷을 입은 건지, 고양이가 조커의 털을 쓴 것인지 모호하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는 것은 언제부터 정상이 된 걸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모든 것을 뒤집어 본다.

K2관 2층으로 가면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사군자 회화들이 나타난다. 이곳 전시장에는 배경음악을 넣었는데 작가는 “내 작품이 전시된 공간이 쇼핑몰, 지하철역과 다를 바 없기를 바란다”며 “미술이 특수하다고 느끼는 감상자의 마음에 균열을 내고 싶다”고 했다. K3관에서는



김홍석 작가의 설치 작품 ‘믿음의 오류’. 뉴스스

거대한 운석이 천장을 뚫고 바닥에 떨어진 듯한 장면이 연출된 설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김 작가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정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현해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미술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3월 3일까지. 무료.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